

개혁주의신학(改革主義神學)이란?

이근삼
(고신대학 교수)

개혁주의 신학은 일명 '칼빈주의(Calvinism)'라고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반(半)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에 반대되는 기독교 사상 체계로서 아우구스티누스주의(Augustinianism)의 부흥이라고도 한다.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통하여 이해된 성경 교리 사상 체계가 개혁파 교회들에 의해서 채택된 공적 신앙 고백들과 칼빈을 따르는 대표적 신학자들의 고전적 저서들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은 발달하였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은 그 수가 30을 넘지만 신조적 권위를 가지고 널리 채용된 것을 보면, 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1564년 불링거(Bullinger)가 기안하여 스위스, 폴란드, 헝가리, 스코틀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개혁파

교회들이 신조로 채용, ②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Heidelberg Catechism*」-1562년 울시너스(Ursinus)와 올레비아너스(Olevianus)가 작성하여 도르트 대회(The Synod of Dordt, 1618-1619)에서 동의를 얻고 독일, 화란, 미국의 개혁파 교회들이 교리 표준서로 채용, ③ 그 외에 영국 교회의 39개조 신조, 개혁파 교회 세계 대회인 도르트 대회에서 채택한 도르트 신경(The Canons of Dordt)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회의(1644-1647)에서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 대소 요리문답, *The Westminster Confession with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등이 있다.

도르트 신경(信經)은 알미니안 논쟁(Arminian Controversy)으로 인하여 작성되어 개혁파 교회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의 보충적인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

한 신앙 고백서는 못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알미니안 전쟁 이후 널리 채용된 유일한 개혁주의 신조이다. 이것은 개혁과 교회들의 일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 교회적 목적과 범위를 가진 것으로 “개혁주의 교리 체계의 가장 완숙한 신조적 진술이다”(Schaff, *Creeeds of Christendom* vol. I, p. 788).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볼 때 칼빈은 가장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그 뒤를 이어서 불링거(Bullinger), 울시너스(Ursinus), 잔키어스(Zanchius), 플라너스(Polanus) 등 초기 신학자들과 그 후 아메시어스(Amesius), 보에티우스(Voetius), 오웬(John Howe),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등을 들 수 있고 근대에 이르러는 하지(Charles Hodge),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워필드(B. B. Warfield), 헤페(Heinrich Heppe), 반틸(C. Van Til), 벌카우어(G. C. Berkouwer) 등을 말할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 체계의 원리와 특징을 본다면, 예정을 개혁주의의 결정적 원리라고 혹자는 말하나, 오히려 그것은 개혁주의의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논리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혁주의의 근본되는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 중심’에 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신다.

도르트 대회에서 알미니안주의자

들이 제안한 5개 조항에 반대하여 결정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개혁주의의 기본적 원리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심적 태도의 발로라고 할 것이다. 그 5대 교리는 ① 인간의 전적 부패, ②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③ 제한된 구속(救贖), ④ 불가항력적 은혜, ⑤ 성도의 인내(궁극적 구원)를 말한다.

위의 5대 교리에서 중심되는 특징 원리를 하나 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정 선택 교리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교리일 것이다. 예정 교리는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에서 다 같이 말하는 것으로 단지 예정의 이유 개념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개혁주의가 다른 체계에 반대되는 특징은 ‘유효한 은혜 교리’에 있다. 개혁주의는 특히 ‘은혜의 신학’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행하심을 고백하는 자는 모두 개혁주의자들이다. 유효한 은혜는 성령의 창조적 효력으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가 루터파만의 대표적 교리는 아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 교리일 따름이다. 그러나 유독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개념의 순수성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 때문에’의 칭의 교리를 거부한다. 루터파는 죄 지은 무거운 영혼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는 데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평화를 찾고 거기에 머문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가?"라고 깊은 질문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온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중심 깊은 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구원에의 열망과 동시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다.

개혁주의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자신을 알며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이다.

개혁주의의 근본 사상을 다음 세 가지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유신론(有神論)이다.

둘째는, 주관적으로 말해서 가장 순수하고 고상한 종교이다.

셋째로, 구원론적으로 말해서 복음주의적이다.

유신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만물의 궁극적 원인됨을 인식하는 우주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참된 유신론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관계가 그 순수성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태도가 행동, 말, 기도에서 확증될 것 뿐만 아니라 생활과 지적, 감정적 실천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복음적 종교는 오직 죄악된 영혼이 유효한 구원에 이르는 유

일하고 직접적인 근원이 되는 은혜의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순수하게 의지하고 쉼을 얻을 때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는 모든 현상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며 모든 발생사(發生事)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의 손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그의 구원의 모든 역사에서 자아 신뢰의 모든 흔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신을 맡기는 자이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는 순수한 유신론, 순수한 종교, 순수한 복음주의로서 순수하지 못한 유신론, 종교, 복음주의에 반대한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의식(意識)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개혁주의자의 감정과 사상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고도의 초자연주의로서 종교 의식과 교리적 구조를 형성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유일한 재료는 하나님이 자아 계시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은혜의 목적을 사람에게 알려 주신 초자연적 특별 계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 구속 사업의 직접적 초자연성이다. 이 구속은 성령의 동등한 초자연적 사역으로 영혼에 적용된다.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유효한 소명 그리고 성령의 중생으로 개혁주의 구원론은 시작한다. 즉 하나님

의 은혜가 구원을 이룬다. 이에 따라 죄인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에 완전히 의존하는 신앙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에 가장 강하게 반대되는 것이 자의(自義) 또는 자아 구원(self-righteousness or autosoterism)이다. 개혁주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재적 구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는다. 개혁주의는 죄인에게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충고, 조언, 권면하러 -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하도록 -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성령의 효과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의 근본이다. 인간의 이와 같은 자아 무능력과 구원에의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의식은 구원론의 근본이다. 그래서 선택 교리는 개혁 신학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심을 아는 사람과, 구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선택의 실현에 달린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 받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에 돌려야만 한다.

개혁주의는 단순히 구원론이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개혁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전부의 전부가 되심을 개혁주의자는 믿는다.

*표지 감상

[자연을 바라보는 개혁 신앙자의 시각]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그 주권적 섭리를 따라 임의대로 부리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은 그의 영광과 숨씨의 표현인(시 19:1-6) 동시에 우주에 인생에게 은혜로 베푸신 아름답고 광대한 살림집이며, 그 가운데의 자연 만물은 인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로 마련해 주신 세간들이다.

성도는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저 모든 자연 은총은 물론, 그보다도 특별한 은총인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존재 의의와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사 43:7, 21, 골 1:16), 또한 우리를 구원(제 2의 창조)하신 목적대로(롬 9:23, 엡 1:11-14) 부응하는 삶이어야 한다.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분을 돈보다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것이 개혁주의 근본 원리와 사상이다(이에 대하여는 위의 「개혁주의 신학이란?」 논문을 참조)!

시편 148편에는 만물을 총동원시켜 우주적 대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렁찬 하아모니를 이루고 있다. 표지 그림과 같이 '바다'와 '나는 새'도 그 찬양대원의 일원으로 물론 동원시켰다. 저 하얗게 부서지며 힘차게 발하는 파도 소리, 거기 장단 맞춰 멋지게 날으며 노래하는 갈매기의 소리에 맞장구치며 이 여름철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잃지 말자! -최-